평화드림 5만리
(부제: 사랑나눔 5만리)

배화여자대학교 허다인

작년 12월, 추운 겨울날 학과에 공지가 내려왔다. '평화드림 5만리 참가 학생 선발 안내', '합창단에 참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유럽, 5개국 10개 도시 탐방 및 평화 퍼포먼스' 이 한 문장만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생활을 상상하면 막연히 '유럽 배낭여행'이 떠올랐었다. 사회적으로 배운 대학생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랑 유럽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 보였고 '가고 싶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여행 준비를 하지는 않을 나라'라고는 생각했었기에 이번 여행은 기대와 걱정이 컸다.

'이렇게 유럽에 무지한 생태로 여행을 떠나도 되는 걸까?' 이처럼 내 머릿속에는 '평화드림 5만리'의 근본적인 행사 활동보다 '여행'에만 빠졌었다.

전병식 목사님 추천으로 선발된 '평화드림 5만리'는 1월 27일(금) 첫 모임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여정을 준비해 나갔으며 4개의 팀(기록홍보, 행정지원, 행사, 퍼포먼스) 중 기록홍보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1달에 1번씩 모든 참가자는 감리신학대학교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나는 그 분위기가 참 좋았다. 기독교인이 아니었기에 모임 초반에는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했었다. 그런데도 먼저 말을 건네주시던 모든 분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은 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따라서 '나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받은 사랑을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이 두 질문은 13일간의 여정 동안 나에게 묻는 가장 큰 질문이 되었다.

처음 공항에 도착해 입단식을 하고 비행기에서 4번의 기내식을 먹을 동안에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실감은 전혀 나지 않았다. 비로소 설렘과 새로운 만남이 북적거리는 네덜란드 공항에서 빠져나와 바람을 맞이하는 순간, 할렘가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말로만 들었던 네덜란드의 흔한 운하들을 구경하는 순간 조금씩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몸으로 느꼈다.

여정 초기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할 틈도 없을 정도로 무지 바빴다. 아무래도 행사 자체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고 내가 속한 기록홍보팀은 사전작업보다 현지, 사후작업에 손이 많이 가는 팀이기도 하니 말이다.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이동하고 찬양을 드리거나 서명운동을 벌일 때조차 잠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순간이 반복되면서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바쁘

게 진행되고 타이트하다고 느껴졌다. “뛰어요, 늦었어요, 서두르세요!” 네덜란드에서 잊을 수 없는 세 단어를 꼽으라면 나는 이것을 고르겠다.

그러나 버스의 에어컨이 고장 나면서부터 우리는 ‘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더위를 피하고자 가끔은 카페에 들러 시원한 커피를 마셨고, 모임 시간을 늦춰 여유롭게 조식을 먹었다. 이러한 여유는 하루를 48시간처럼 보내는 데에 있어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자’는 여행 시작 전 은희곤 감독님께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지향하길 바라셨던 문장이다. 이 문장을 몸으로 실천함을 눈으로 보여주었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한다.

카페에 들렀을 때 본인보다 다른 참가자들의 손에 먼저 커피를 쥐여주던 사람들, 좁은 카페 속 자리를 내어주던 사람들, 그 값을 대신 내준 분들, 버스에서는 서로 부채질해 주고 땀 흘리던 친구에게 작은 선풍기를 대주었으며 뒷좌석 학생들과 자리를 바꾸어 준 분, 유럽에서는 감히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생수를 전체 인원에게 나눠주신 분,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덥거나 힘들면 주저 말고 말하라던 분,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오셨다는 말, 모든 순간이 사랑 그 자체였다. 이렇게 또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

타인에게서 이유 없는 사랑을 받으며 궁금해졌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대해주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비엔나에서 진행된 예배 시간에 알게 되었다.

나는 천주교 모태 신앙자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신앙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나 묻는다면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할 수 있다. 나름 여름, 겨울에 진행되는 중고등부 성경학교에도 빠지지 않았지만, 신에 대한 신앙심으로 다닌 거라고는 할 수 없다.

‘하느님은 존재하시는 걸까, 나는 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야 하는 걸까, 신이 있다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더 쾌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를 믿는 걸까?’ 항상 속으로만 해왔던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들을 나는 김경화 전도사님, 김주현 전도사님, 김준 전도사님과 대화하면서 내 스스로의 신앙심에 대한 방향을 찾기 위해 생각해 보았다.

13일을 함께하면서 신앙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김주현 전도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다. “내가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그를 따라 그러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유경동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너무 좋았다. 기분 좋은 재치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여정을 함께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믿고 그들을 따라 비엔나에서 예배를 드렸다.

박수치며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찬양 시간도 좋았다. 그 가사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가사인데 왜인지 모르게

나는 예배가 진행될수록 눈물이 나왔다. 김준 전도사님은 언젠가 꼭 눈물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셨다. 아직도 명확히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지난 나의 신앙심에 대해 안타까운 감정, 잡아주던 이 없이 흔들리던 어린 나에 대해 미안하고 서러운 감정, 그러한 감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만남에 감사하던 감정이지 않을까 하고는 생각한다.

무언가를 훌훌 털어버리고 상쾌한 눈물을 흘리고 나니 무언가 마음의 짐이 사라졌고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나의 올해는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신학과 전공자들에 비하면 나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무지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나누는 일에서는 전공자들보다 빠지지 않고 함께할 수 있었다. 나는 어떠한 사랑을 실행할 수 있을까? 얼른 한국에 도착하면 다니던 성당에 나가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듣고 싶어졌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유치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졌다.

난 여전히 참가자들이 나를 바라봐 주는 따스한 미소를 잊을 수 없다. 그분들은 그들이 나에게 주신 그 작은 미소 하나 덕분에 내가 이 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실까? 단지 유럽 여행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값지고 큰 것들을 가슴속에 담아올 수 있는 여정이었다. 이 기억은 내 삶에 있어서 지치거나 힘들 때 꺼내 볼 수 있는 작은 추억이 되었다. 나도 그들과 같이 신앙에 대해, 사랑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올바른 답을 찾아 실행할 수 있길 바란다.